

[과기원NOW] KAIST, 2024 기후테크 전국민 오디션 우승팀 선발 外

2024.12.18 20:21



KAIST 기후테크 전국민 오디션 수상자 단체사진. KAIST 제공

■ KAIST는 '2024년 기후테크 전 국민 오디션' 결승전 행사를 17일 개최하고 최종 8팀을 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할 아이디어와 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일반 리그에서는 방사성 물질로 전기를 생산해 탄소 절감에 기여하는 아이디어를 낸 안빈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박사과정생이 대상을 받았다. 스타트업 리그에서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활용해 친환경적으로 초고순도 아세톤을 생산하는 기술을 제안한 기업 에코캐탈이 대상을 받았다. 일반리그 대상에는 창업지원금 2000만원, 스타트업 리그 대상에는 사업화 지원금 3500만원이 수여됐다. 배현민 KAIST 창업원장은 "기후테크는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기술과 비즈니스를 결합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창조하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전했다.

■ 포스텍은 한세광 신소재공학과 교수팀이 방광 내 환경을 이용해 스스로 추진력을 얻고,

치료제를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스마트 자가추진 나노모터를 개발하고 연구결과를 지난달 15일(현지시간)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연구팀은 요소(urea) 분해효소를 나노입자에 결합해 방광 내에 풍부한 요소를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효소가 요소를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로 분해할 때 발생하는 기체를 이용해 약물전달체에 추진력을 제공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약물을 실은 작은 나노모터가 빠르게 방광벽에 도달해 효과적으로 약물을 전달했다. 연구결과는 현재 의료현장에서 방광암 환자에 사용되는 면역치료제보다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보였다.

■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이상한 신소재공학부 교수와 하민정 교수가 국가전략기술 분야 초격차 소재 발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 교수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인 첨단 소재 분야에서 에너지 소자 관련 혁신적 소재 발굴에 기여한 공로를, 하 교수는 자성 소재 분야의 난제 기술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두 연구자 시상은 12일에 열린 '2024년 소재 연구단 성과공유회'에서 진행됐다.

■ GIST는 해외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4기 외국인 유학생 홍보대사를 임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4년째인 외국인 유학생 홍보대사는 GIST 학사과정과 대학원 과정에 재학하며 실제로 느낀 장점을 자국의 예비 입학생에게 알려 우수한 외국인 신입생을 유치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13일 열린 임명식에서는 1년 간의 활동한 제3기 홍보대사(14개국 16명)에게 활동증서를 수여하고 우수 홍보대사를 시상했다. 제4기 홍보대사도 임명·소개됐다. 송미령 GIST 입학학생처장은 "외국인 홍보대사 프로그램을 확대해 소속감을 고취하고 더 많은 글로벌 과학기술 인재를 유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참고 자료>

- doi.org/10.1038/s41467-024-54293-z



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